

三電 내다파는 외인 vs 주워담는 개미... 누가 웃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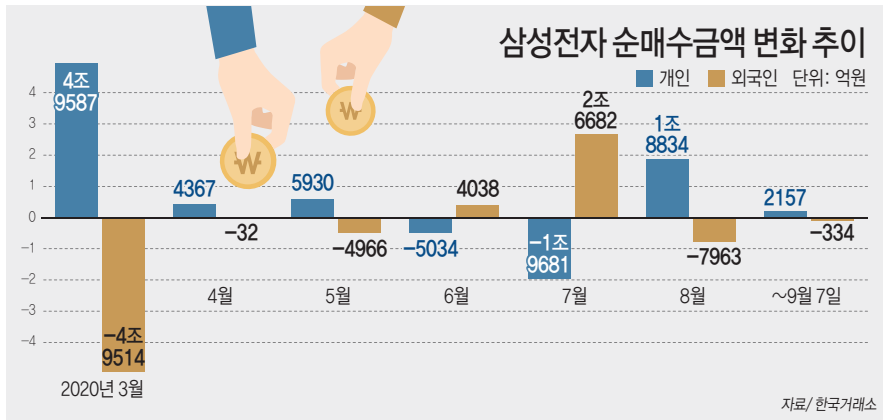
개인투자자, 삼전 1.8조 순매수
안정적 투자처, 3분기 실적 기대

외인 8000억, 기관 1.1조 순매도
단기 변동성 확대 성장주 사들여

지난 한 달간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외국인들은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코스피 상위 대형주를 팔고, 바이오주를 주로 사들였다. 개미들은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판단해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 1조883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7963억원어치, 기관은 1조106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주로 코스피 시총상위인 대형주를 팔고, 바이오주를 사들였다. 순매도 1위 종목인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 6841억원 ▲SK하이닉스 6018억



원 ▲LG화학 4558억원 ▲카카오 3598억원 ▲삼성SDI 2017억원 등을 팔아치웠다.

외국인이 8월 한 달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신종제약이다. 이 기간 외국인의 신종제약 순매수 금액은 2321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동안 ▲알테오젠 1946억원 ▲씨젠 704억원 ▲셀트리온 485억원 등을 사들여 바이오주가 순매수 종목 상위에 올랐다.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대형주는 팔아치우고,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여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살펴보면 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미들은 외국인과 상반되는 행보를 보였다.

8월 1일부터 지난 7일까지의 개인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2조 991억원)은 2조원을 넘어선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이 시작되던 지난 8월

19일부터는 11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 하던 지난 3월, 13거래일(3월 5~23일) 연속 순매수한 이후 두 번째 최장 기록이다.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로 몰리는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속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판단과 3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약 8059만대로 전 분기 대비 4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했던 2분기 대비 기저 효과와 미·중 무역 분쟁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갤럭시노트20와 갤럭시폴드2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속에 갤럭시A 시리즈의 매출도 증가세를 보인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계절적으로 4분기 판매량 및 수익성은 둔화되지만, 2021년 폴더블폰 비중 확대 및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 증가로 수익성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

혔다.

또한 지난 7일 삼성전자는 세계 1위 통신사업자 버라이즌에 8조원 규모의 5G 통신장비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중국 화웨이를 제치고 미국 5G 통신장비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계약은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의 계약이지만 통신장비 캐패시 특성상 향후 1~2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그 이후로는 유지·보수로 매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2년간 연간 약 20~25억달러 수준의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계약을 통한 잠재적 이익 증가 규모는 지난 12개월 누적 영업이익의 29.5조원 대비 1.7~2.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일 주가가 1.6% 상승한 것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코로나 이후 증권사 투자보고서 '중립' 늘어

항공사 등 실적 악화 종목 증가
바이오 등 언택트주 과열 영향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에도, 증시 상승이 지속되면서 투자자의견 '중립'을 기록한 투자리포트가 늘어났다. 항공사 등 실적 악화 종목과 바이오와 같이 주가가 과열된 종목이 늘어난 탓이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최근 1년 간 메리츠증권은 10개 투자리포트 가운데 2개가 '중립' 의견을 달았다. 중립 의견 비율은 21.2%로 지난해 6월 말(3.0%)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증권사 리포트는 매수·중립(보유)·매도 등 총 3가지 투자자의견 중 하나를 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매도의견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립은 매도의견에 가깝게 해석되고 있다. 매수 일색으로 지적 받던 증권사 투

자 리포트 시장에 적극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NH투자증권도 최근 1년 간 10개 투자보고서 중 2.4개 꼴로 '중립 의견'을 냈다. 중립 의견 비율은 전체 24.3%였고, 매도의견 비율도 0.5%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NH투자증권은 매도 보고서를 한 건도 내지 않았고, 중립 의견 비율은 21.6%였다는 점에서 올해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은 투자 리포트가 늘었다는 해석이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올해 중립 의견 비율은 지난해보다 3.6%포인트 증가한 11.6%로 집계됐고, 매도 리포트도 0.6% 비율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중립 의견을 나타낸 투자보고서 비율은 각각 19.5%, 26.6%로 지난해보다 둘 다 2.1%포인트 늘었다.

종목별로 보면 미래에셋대우는 제주 항공에 대한 투자자의견을 코로나 이후

매수에서 중립(보유)으로 바꿨고, 6월에는 중립에서 매도(비중축소)로 전망을 또 다시 낮췄다. 또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는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춘 바 있다.

또 다른 코로나 타격업종으로 꼽히는 CJ CGV 등 엔터테인먼트 업종과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여행업종 역시 증권사들이 잇달아 보수적인 투자자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 이후 언택트(비대면) 업종의 주가가 과열되면서 투자 전망을 하향 조정할 사례도 다수 나왔다. 대표적으로 컴투스, 펠어비스 등 게임 업종은 3월 저점과 비교에 2배 가까이 주가가 오르면서 증권사는 투자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아울러 녹십자, 셀트리온 등 바이오 업종이 크게 올라 삼성증권 등 증권사는 투자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조정했다. /손영지 기자



SK건설, 업계 최초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SK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SK건설은 지난 2014년 동반성장 평가에서 국내 건설사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평가부터 올해 발표할 2019년 평가까지 건설업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2019년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임영문 SK건설 사장(오른쪽)과 이재림 행복날개협의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건설

KB證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공

퇴직연금 계약 기업 대상 서비스

KB증권은 퇴직연금 계약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제공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국내 기업이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직장내 업무나 일상생활도 대면에

서 비대면으로 변화하고 있고 집합 교육 역시 어려워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찾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교육 기업인 씨앤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KB증권 퇴직연금 계약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수요증 발급 서비스까지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손영지기자 sonumji301@

한국투자證 日 부동산 펀드 누적수익률 67%로 상환

도쿄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1호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도쿄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1호'가 설정 3년만에 약 67%의 누적수익률을 기록하며 상환된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9월 6일 설정된 '한국투자도쿄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1호'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하고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국내 최초의 일본 오피스 실물 부동산펀드다. 설정 당시 최저가입한도를 500만원으로 낮춰 소액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판매기간 동안 목표 모집액의 2배가 넘는 1437억원이 몰렸다. 해당 펀드는 도쿄 아리아케 지역



일본 도쿄에 있는 아리아케 센트럴타워. /한국투자신탁운용

에 소재한 20층 규모의 오피스빌딩 '아리아케 센트럴타워'를 편입했다. 자산 소유권 지분 50%를 총 165억3000만엔

에 사들인 후 일본 투자기관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지나인 재팬 파이프(G Nine Japan Five) TMK'에 191억 5000만엔에 매각했다. 부동산매각차익은 약 26억2000만엔(약 293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는 5회에 걸친 누적배당과 청산배당을 포함 3년 간 세전 약 67% 수준의 누적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억원을 투자한 경우 이익금으로 약 67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배당금은 9월 11월 2회에 나눠 지급하며 최종성과는 손해배상 유보금이 정산된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투자 유튜브 강연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이베스트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실전투자대회 세미나를 실시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 18일부

터 이달 25일까지 총 상금 1억2996만원의 상금과 다양한 혜택을 걸고 국내주식 실전투자대회를 진행 중이다. 대회시작 일주일만에 3000명 이상의 투자자와 신청자 자산기준 약 3290억원이 몰렸다.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참가자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대회 참가자들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위해 기획됐다. /송태화 기자